

## 고양, 일산차이나타운 대규모 중국 청도투자단 방문

(중부일보 2005.05.20)

고양, 일산차이나타운 대규모 중국 청도투자단 방문

【고양】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활성화시설로 추진중인 차이나문화타운 건립사업 현장에 19 일 중국의 산둥성 청도시 왕시우 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문해 시 관계자와 시행사인 서울 차이나타운개발(주)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다. 이들의 방문은 지난 2 일 중국 청도 해천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일산 차이나타운 투자설명회로 얻은 성공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서 당시 서울차이나타운개발(주)는 고양시와 북경 청화대학기업집단의 후원으로 약 150 명의 청도시 기업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데 따른 것. 중국 산둥성 청도시는 전체 투자의 60%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만큼 한·중간 교역이 활발해 한국기업들의 대(對)중국 사업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투자업체와 상사 주재원 등 약 6 만명이 활동하고 있다. 한편, 중국은 이미 한·중수교 이전에도 한·중의 전략적인 창구로 청도를 지정해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. 허일현기자/hur20027@joongboo.com